

2017 석탑대동제 '쿠레용'

“고민은 잠시 잊고, 제대로 놀아보자!”

Day 1 다양한 대회 대동제 시작을 알리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2017 석탑대동제 '쿠레용'이 진행됐다. “오늘부터 대동제네!”, “대박, 완전 좋아!” 점심시간 민주광장, 이곳 저곳 사진찍기 바쁜 학생들과 부스 설치에 분주한 학생들. 대동제가 시작됐다.

하나스퀘어 잔디밭에는 ‘낮잠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학생들과 구경 나온 학생들로 붐볐다. 낮잠자기대회에선 대동제 집행위원들이 학생들의 낮잠을 방해하기 위해 물도 뿌리고, 벌레 소리도 냈다. 대회에 참여한 하원(문과대 사회16) 씨는 “대회에서 우승하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참여했는데, 벌레 소리가 놀라서 잠에서 깬다”며 아쉬워했다. 잔디밭에 앉아 대회를 지켜본 학생들도 즐거운 건 마찬가지였다. 권형목(공과대 신소재17) 씨는 “낮잠자기대회도 신선했고, 푸드트럭에서 파는 음식을 하스 잔디밭에서 먹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뒹야, 맛있는 냄새 나는데?” 오후 4시 민주광장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센터(센터장=김세용 교수)가 주최한 ‘요리경진대회’가 한창이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진우(문과대 사회16) 씨가 ‘야구 스파게티’와 ‘유자 토마토 샐러드’를 선보여 우승했다. 이진우 씨는 “평소에 요리를 즐겨해 참여했다”며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해본 적이 없어서 긴장했는데 시작하고 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캠퍼스타운 추진센터는 축제를 맞아 지역 상인과 연계한 상가 찾기 게임, 삼행시 대회 등을 열었다. 이번 요리 대회를 기획하고 홍보한 캠퍼스타운 서포터즈 임종찬(정경대 행정16) 씨는 “학생들에게 직접 캠퍼스타운을 알릴 수 있어 좋았고 상인, 지역과 연계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Day 2-3 비가와도, 날이 맑아도 즐거워
민주광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나오는 신

나는 멜로디는 중앙광장까지 울렸다. 무대를 보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학생들과 동기의 공연을 응원하기 위해 온 학생들이 무대 아래에 모였다.

“비 내리긴 하는데 그냥 주춤 놀러가자.” 대동제 둘째 날 저녁, 때 이른 더위를 식히는 비가 왔지만 학생들은 아랑곳 않고 축제를 즐겼다. 연예인들의 공연이 취소돼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주춤에는 빛소리보다 더 크게 웃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주춤을 찾은 임선희(미디어 17) 씨는 “비가 왔지만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과 즐거워 좋았다”고 말했다. 주춤을 정리하며 수고했다는 학생들. 대동제의 둘째 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셋째 날은 비가 온 둘째 날과 달리 날이 맑았다. 홍보관 앞 자유마루에는 산책하는 할아버지들, 아이들과 함께 소풍 온 가족들도 있었다. 자유마루에 앉아있던 필리핀 꼬마 숙녀 펠시티(Felicity, 여·6)는 “분위기가 좋네요! 여기 마음에 들어요”라고 수줍게 말했다. 중앙광장에서 패션 학회 ‘웃거리’가 플라마켓을 열었다. 플라마켓에선 강아지 옷들을 비롯한 다양한 패션아이템들이 팔렸다. 고등학교 교지부에서 대학 축제를 취재하러 온 손채은(여·18) 씨는 “축제가 아니라 고등학생 신분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중인데 볼거리가 참 많다”며 플라마켓을 둘러봤다.

“우와, 저건 뭐야?”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끄는 부스가 있었다. 바로 교양관 앞에 설치된 인기 온라인게임 오버워치 대학 라이벌전 부스였다. 오후 6시에는 본교와 연세대의 사이버 고연전이 진행됐다. 결과는 2:3 고려대 팀의 아쉬운 패배였다. 대표로 참여한 ‘KuVyUs’의 팀장 김갑용(공과대 기계11) 씨는 “오버워치가 재밌고 제 실력에 자신감이 있어 참여했다”며 “고생하면서 팀원들과 웃으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임을 선정한

좋은 기획이었다”고 말했다.

Day 4 마지막 날은 힘합으로

대동제의 마지막 날, 학생들은 힘합 공연을 보기위해 민주광장 무대에 모였다. 힘합 동아리의 공연과 고대래퍼에 참여한 학생들이 선보인 스텝 넘치는 랩이 축제 분위기를 살렸다. “우와 재는 진짜 잘한다. 쇼미더머니 나가도 될 듯.” ‘힘합의 신’에 참여한 김남현(정경대 경제17) 씨는 “무대에서 볼 기회가 적었는데, 직접 참여하게 돼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동제에는 타이거 JK, 윤미래 등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무대에 따라 손을 들고 뛰기도 했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공연이 끝나도 민주광장에 모인 학생들은 “윤미래 진짜 멋있다”, “한번 더 보고 싶다”고 말하며 가수들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정경대 후문, 파이빌 계단 등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은 맥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내일 입실렌티 때도 놀아야 하는데 오늘은 술 적당히 마시자”, “대동제 진짜 인정!” 정경대 후문을 나오는 학생들의 대화가 대동제의 끝을 알렸다.

글 | 공명규·김신희 기자 press@
사진 | 김혜윤 수습기자 press@



“한 번 깨워 보시지!” 22일 낮잠자기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우리 팀이 훨씬 잘 할 거야!” 24일 민주광장 무대에서 오버워치 대회가 진행됐다.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Dennis Hong) 강연

“모든 로봇은 넘어집니다”

22일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Dennis Hong,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가 ‘모든 로봇은 넘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경영대(학장=권수영 교수) 미래연간포럼 KUBS Futurum의 첫 번째 강연으로 본교생을 비롯해 교수와 교우들 300여 명이 참석했다. ‘로봇공학의 다빈치’라는 별명을 가진 데니스 홍 교수는 로봇공학에 대한 열정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로봇들을 발명해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았다.

홍 교수는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강연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오프닝 멘트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루이스 설리반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을 인용하며 사람의 일을 대신할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의 외형을 갖춰야 함을 고집하는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홍 교수는 “물건의 모양은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사소한 문 손잡이도 모두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쓰이려면 인간과 같은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니스 홍 교수가 개발한 드리블하는 로봇 ‘다윈’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로봇컵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홍 교수는 “몇몇 사람들은 왜 축구를 하기 위한 로봇을 만드는데 돈과 시간을 낭비하냐고 꾸짖었지만, 나는 축구조차 못하는 로봇을 어떻게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가 로봇컵 출전을 위해 강화시킨 다윈 4호기는 학계에 내놓자마자 연구용, 개발용 로봇으로 사고 싶다는 러브콜이 쇄도했다. 이에 데니스 홍

교수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자신의 연구소 ‘RoMeLa(로멜라)’의 이름을 딴 ‘다윈 로멜라’를 개발했고, 다윈 로멜라의 모든 것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한편 로멜라 연구소에서는 로봇컵 출전을 위해 개발했던 모든 기술을 활용해 화재 진압로봇을 만들기도 했다.

데니스 홍 교수는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구조로봇대회인 ‘DARPA 로봇 챌린지’에 출전한 데니스 홍 박사 팀의 휴머노이드 로봇 ‘THOR(토르)’가 대회 전날 리허설에서 부숩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홍 교수는 “그때 당시 함께 출전했던 교수가 ‘모든 로봇은 넘어진다’라는 말을 전했고 덕분에 다들 힘을 차릴 수 있었다”며 “우리 연구소의 장점은 팀원에게 비싼 로봇을 고장 낼 때까지 한계로 밀어붙인다는 점이며, 실패를 보고 배우는 자세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뒤 데니스 홍 교수는 “가치 없는 질문은 없다”며 청중들에게 주저 없이 질문할 것을 격려했다.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소개한 신홍규(문과대 사회13) 씨는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켜줄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물었다. 홍 교수는 “시각 장애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됐더니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아주 근본적이지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그때 샘슨은 아이디어로 시각장애인 전용 자동차를 만드는데 성공했고, 시범 운전은 끝마친 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독립감에 행복해하는 시각장애인 분을 보고 앞으로 장애 관련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신희 기자 shine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험

ING생명 사랑의 보험금 캠페인

‘사랑의 보험금 캠페인’은 고객님께서 존심보험에 가입, 보험 수익자를 후원하고자 하는 자선단체 또는 학교로 지정하시는 선진 기부 문화입니다. 2001년 ING생명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래, 1,500여명의 고객님이 동참하여 기부를 통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말 기준)

‘ING생명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단체들’

※ 위 8개 단체 외에 비영리 법인 자선단체 및 학교도 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ING생명 WORLD지점 재무설계 이훈수 FC
010-3657-0526

- 2013년 12월 ING입사
- 2014년 MDRT회원 달성
- 2014년 ING CUP CONVENTION달성
- 2014년 ING SUMMER AWARD 달성
- 2014년 NEW STAR AWARD 달성
- 2014년 PREMIER FC 달성
- 현재 2015년 3월, 성공-3W 54주 달성
- 지점 신입 교육 강의담당
- 현 번역 마스터 멤버 활동

www.inglife.co.kr